

Thematic Radar

Ep. 23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란의 딜레마

-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공습 감행. 핵 시설에 대한 집중 공격인 만큼 작년 10월에 비해 높은 불확실성 예상
- 이란은 핵시설을 상실할 경우 미국과 서방에 대항할 수 있는 핵심 카드를 상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안
- 다만 이란의 군사적 열세는 이란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 미국도 확전에는 반대. 방산에 대한 관심 높일 필요

금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공습을 감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언하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결의안에 반발해 새로운 핵농축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후 내려진 조치다. 지난 12일 IAEA는 이란이 약속한 핵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입장을 오랜기간 취해왔는데,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WTI가 한때 10% 가까이 상승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

작년 10월에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감행됐는데 당시보다 긴장감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 당시에는 미사일 공장과 일부 군사시설을 공격했고, 언젠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다소 제한적인 목적으로 감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다. 핵시설은 이란이 미국과 서방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핵심 카드로, 핵시설을 상실될 경우 각종 경제적 제재를 풀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으로 핵시설을 전부 무력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필요한 만큼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란도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의미로, 이란의 보복 수위에 따라 변동성은 한층 증폭될 수 있다. 특히 2020년 1월처럼 중동 지역내 미군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최대 리스크다. 미군의 개입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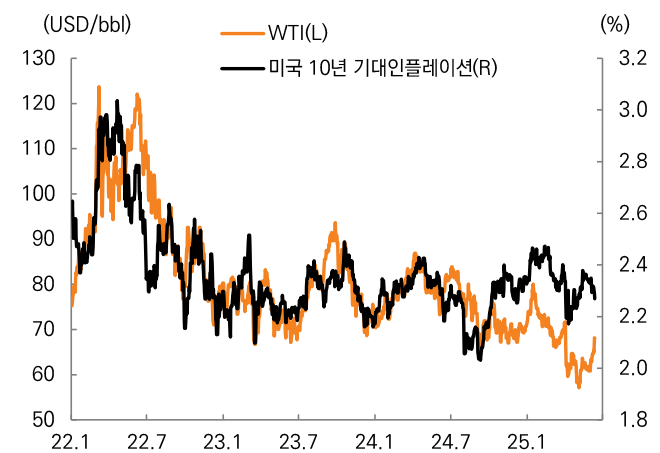
다만 이란의 행동을 제한하는 요인도 있다. 이란은 작년 이스라엘과의 갈등에서 군사적으로 열세에 놓였다는 점이 나타났다. 약 300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한 공격을 가했지만 피해는 미미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별다른 피해 없이 이란의 핵심 시설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란이 불리하다는 신호다. 이란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옵션은 제한적이라는 딜레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신경쓰는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스라엘이 독단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란과의 핵협상을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식 시장 관점에서는 방산 테마(SHLD)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벤트인 만큼, 미국 방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 WTI와 유가 변동성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유가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